

자신감은 철저한 준비에서 온다



최종우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임상과장이자 세계적인 안면재건 전문가로 자신감을 잃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

최종우 교수는 진료실에서 다양한 환자들을 만난다. 선천적으로 얼굴에 기형이 있는 환자, 질병이나 외상으로 얼굴이 틀어진 환자, 오래 전 성형수술을 한 곳이 변형된 환자 등 얼굴 생김만큼 사연도 다 다르다.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지금의 얼굴로 살아갈 자신감을 잃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자유를 빼앗긴 아픔이다. 특히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거나 리스크가 큰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최종우 교수는 환자와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어려운 수술을 하는 것은 서울아산병원 같은 대형병원의 의사에게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얼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라 약간의 차이에도 이상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수술 후 제대로 자리를 잡는 데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리니 환자 입장에서 수술이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죠. 힘들고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 저를 믿어주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끝까지 노력하게 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철저한 사전준비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외과 의사가 된 최종우 교수는 성형외과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안면재건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음성꽃동네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며 삶의 방향을 결정지었다. “3년간 근무하며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돕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간 이식 수술을 계기로 서울아산병원에 들어온 그는 두경부암 제거·

재건을 위한 두정부 미세수술과 양악수술, 코성형 수술에 집중했다. 특히 수술을 준비할 때에는 몇 번의 가상 수술을 진행해보며 철저히 계획을 세우는 데 힘을 쏟았다.

“제가 좋아하는 야구선수가 ‘자신감은 확신에서 오는게 아니라 준비에서 온다’는 말을 했는데, 이건 제 신념이기도 해요. 무턱대고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자신감이 생기는게 아니라,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거든요. 사전 준비에 얼마나 공을 들이는가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우 교수의 이런 신념은 첨단 기술을 만나면서 빛을 발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3D 카메라, 3D 프린팅 등을 이용해 직접 여러 차례 가상의 수술을 해보면서 수술의 정확도를 높인 것이다. 10여 년 간 적용하며 데이터가 축적되어 수술 후 치료결과까지 예측이 가능해졌다. 이 덕분에 지난해 마다가스카르의 한 청년에게 성공적으로 제 얼굴을 찾아줄 수 있었다.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 마을에서 자란 마다가스카르의 플란지(Flangie)는 10여년 간 얼굴 크기만 한 거대 종양으로 고통받아왔다. 현지에서는 수술이 불가능해 서울아산병원이 돕기로 했고, 최종우 교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거듭하며 수술 계획을 세워 짧은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최근에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증강현실까지 도입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가장 권위 있는 세계미세재건학회에서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하악 및 혀 재건 사례를 발표해 가장 우수한 사례에 주어지는 ‘베스트 세이프 어워드’를 수상했다. “언젠가는 상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첫 도전에 수상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세계적인 학회에서 참가자들의 투표로 받은 상이라 더 뜻깊었죠.”


다양성이 키운 세계 속의 서울아산병원

세계적인 안면재건 전문가로 인정받은 최종우 교수와 함께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도 아시아권에서 손 꼽히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0여 년간 전 세계 80개국에서 600여



2022년 한국을 찾아 얼굴 크기만 한 종양을 성공적으로 치료받은 마다가스카르 플란지(왼쪽)와 수술을 집도한 최종우 교수(오른쪽).

명의 해외 의학자가 최신 기술을 배우기 위해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를 다녀갔다. 최종우 교수는 “현재도 약 20여 명의 해외 의학자가 연수 중”이라고 말한다. “서울아산병원은 학연, 지연과 상관없이 오직 실력으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됐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의학자들과의 교류와 적극적인 참여도 선의의 경쟁을 하게 하는 힘이고요. 이런 다양성이 서울아산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성장시킨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성형외과 과장으로써 더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우 교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면이식’이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얼굴로 바꾸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부감이 강해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 건의 안면이식수술이 이뤄졌고, 우리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적·윤리적 문제만 해결되면 안면재건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이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처음 안면이식의 꿈을 품은 지 10여 년, 그는 지금도 수술 리허설을 거듭하며 언젠가 필요한 환자가 나타날 때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 “준비는 항상 필요하고, 그 과정 자체가 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는 최종우 교수에게서 준비된 자의 자신감이 느껴졌다.  글 편집부